200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혁과 고교 평준화 문제

이 경 숙 이화여대 입학처장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갖가지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이것은 세기가 변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측면도 있지만 갑자기 IMF라는 위기를 맞게 된 우리로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998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방문한 앨빈 토플러는 "한국이 IMF에 휩쓸린 것은 교육의 실패 때문이었다. 창의력 함양과는 거리가 먼, 죽은 교육이 외환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의 부재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라고 말했다. 또 1998년 4월 15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 사설에서는 한국이 IMF 관리체제라는 불행을 겪게 된 원인을 "암기식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회지도층이 국가 경영에서 능력상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구태여 외국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의 암기식·획일적·주입식 교육이 우리의 청소년을 황폐화하고 사회를 어렵게 하며 결국 국가의 장래까지도 망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은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릴 수 있는 진단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올바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변화무쌍하게 제도를 바꾸어 온 교육행정 당국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안일하게 수수방관만 해 온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잘못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 극성스런 학부모들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자식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지나친 이기심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극렬하고 노골적이어서 어떤 제도도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대책이 무책"이라는 말까지 난무하게 하고 있다. 외국에서조차 한국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유명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이 말은 한국인들의 이기주의와 치졸한 승부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입시문제를 비판한 자조적 진단인 셈이다.

언제나 지적되는 한국 부모의 높은 교육열은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부정적인 면에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60~'70년대에 이룩한 한국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이 바로 이 한국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고급인력의 대량화가 그 원동력이 되어 이룩되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 나라가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수출 주도 정책에도 기인하지만, 그보다는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한국 사회에 축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받은 인력이 산업 사회에서 필요한 일정량의 지식을 습득하고 반

복하고 훈련하는 데 열심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산업 사회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사회에는 주입식이나 암기식으로 교육을 받아 창의력 없이, 그냥 윗사람의 명령에 순종만 하고 눈치나 보고 자신은 전혀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노동력만으로는 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정보시대에 맞는 인력을 길러내지 못한 것이 우리가 IMF 시대를 맞게된 원인이고, 이제 우리 교육이 달라져야 하는 절대절명의 이유이다. 교육제도가 변해야 되고 그것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인식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개혁을 해야 정보화 사회를 맞는 우리 청소년들의 경쟁력을 길러 주면서 동시에 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억제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해방 이후, 대학입시제도는 정말 수도 없이 바뀌어 왔다. 해방 이후 입시제도는 주요 시험을 국가에서 출제하였는지 아니면 대학에서 출제하였는지에 따라 크게 8번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도 대개는 해당 연도의 입시에서 일어난 결점만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아예 다른 형태의 시험으로 전환하여 문제점을 외면하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가에서 대학 입학을 위한 문제를 출제하다가, 대학의 자율권이 강조되어 대학에서 출제하다가, 또 그 과정에서 부정입학이나 대학 신입생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 다시 국가가 출제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해 온 것이다. 학력고사가 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뀐 것은 1995학년도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매우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 제도의 명칭을 '무시험전형제'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혁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실질적으로는 시험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시험전형제도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유발시키는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지필 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시험점수 이외의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요소를 반영하는 특기자전형의 규모 확대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아무 시험도 없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2학년도의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의 특징은 다양화와 특성화이다. 종래의 제도들이 시험에 큰 비중을 두었다면, 새 제도는 교과시험보다는 비 교과성적, 즉 특기·수상경력·학교생활·과외활동·봉사활동·지도력·잠재적 능력·인성·면접·추천서·자기 소개서 등의 전형요소를 골고루 반영하여 실시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학능력 평가를 자격시험 정도의 기준으로만 보고, 분야별로 해당되는 한두 과목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는 방안을 대학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여 자격시험 정도로 비중을 낮춘다는 것은 현재의 과외열기를 없애고 중·고등학교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리고 분야별로 해당과목 우수자를 뽑아서 선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과외를 부추겨온 일류, 이류 등의 대학의 서열화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각 대학 나름의 특성화된 입시제도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일꾼이 될 인물들을 키워서 세계 우수한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대학 당국에게 요구하는 다양화, 특성화는 기본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때 부딪치는 문제는 치맛바람의 과열 혹은 고등학교 교사들의 업무량 과다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교평준화에 따를 고교등급화의 문제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각 학교의 내신이나 교사의 추천서, 학업수행능력 평가서 등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별로 큰 차이

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일한 척도로 추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몇몇 대학에서는 고교별 학력 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결국 '98년 10월 19일 교육부 장관은 고교등급제는 반교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심지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까지 못을 박았다.

교육부의 입장에서 고교등급화를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하늘을 찌르는 한국의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과외수업 근절,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두고 교육개혁을 실시하려는 마당에 중·고등학교를 차별화 한다면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부터 과외열풍이 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일반계 고교간 수학능력시험 평균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232점이나 된다는 결과를 보면,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각 고교간의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이나 평가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우수한 고교의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능점수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믿어온 대학들이 실제로 232점이나 떨어지는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일정한 석차 안에 든다고 해서 우수한 고교의 졸업생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은 일류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끼리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력의 낭비, 우수한 인력의 낭비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전국 고교의 평준화는 사실상 하향 평준화이기 때문이 다시금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969년 제비뽑기로 중학교가 평준화되고 그 뒤 고교까지 평준화된 것은 고교평준화가 아니라 고교 백치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아 경쟁적으로 노력하게 하고 수재들의 자질과 잠재력을 키워 주어야만 우리 나라의 장래가 밝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 그룹은 결국 우리 사회의 1% 미만의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어려서부터 따로 모아 경쟁의욕을 고취시키고 능력과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물론 어제오늘 생긴 것은 아니다. 짐작컨대, 교육부에서도 이런 견해들을 감안해서 이미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특수 목적고를 설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에 재능 있는 학생들과 외국어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생겨난 것이다. 이들 고등학교만이라도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영재교육 목표에 매우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다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은 듯하다. 특수목적고의 본래 설립 의도는 왜곡되어, 환경이 좋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모아서 명문대학에 많이 합격시키는 고등학교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특성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특수목적고의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에 대한 교육부 당국과 특수목적고, 그리고 대학의 견해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다. 특수목적고에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교육열이 높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우수한 학생들과 학업성적의 우수함의 척도가 종래의 명문대 입학률로 결정되었다면, 이들 학교의 존립목적은 왜곡되고 만 것이다. 만일 이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이 모여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그 내용이 수능시험 준비라든가 암기를 열심히 한다든가 객관식 문제 풀기에 치중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공헌하기는커녕 오히려 망국적인 과행교육이 강화되는 결과를 면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수목적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나 존립 자체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등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립해 놓은 특수목적고를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특수목적고에서는 대학입시에서 어떤 제도적(?) 이익을 얻어, 내신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는 중학생들을 붙잡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특수목적고는 나름대로 과학 혹은 외국어를 특기로 하는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백치 평준화라는 평을 듣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분위기로, 정말 영재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대학입시 때에 문제가 되는 내신은 비교 내신으로 바꾸든지, 내신 대신 특기자를 뽑는 제도를 확대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특수목적고는 그 나름대로 대학입시에서의 유리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계발을 위해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 선의의 경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특수한 목표를 가진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으로 계속 남아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짚어 봐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일반 고등학교의 문제이다. 고교평준화의 가장 큰 문제는 한 학급에 공부를 하려는 학생과, 공부는 싫고 딴 것에만 마음이 있는 학생들이 섞여서 수업분위기를 망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 바깥, 다시 말해서 과외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교사들은 공부를 할 만한 학생들은 다 알아서 과외를 하므로 학교에서 굳이 더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고, 또 학부형들은 그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가르쳐도 너무 수준이 낮게 가르치기 때문에 과외를 안 시킬 수도 없다고 항변한다. 사실 학교 교육이 정상화하려면 교사들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공부에 능력이 있는 학생과 능력도 흥미도 없는 학생들, 그것도 차이가 크게 나는 학생들을 같이 놓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같은 과목의 등급을 매긴다든지,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과목을 선택적으로 열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과목별로 등급을 매겨서 학업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학생들과 다른 방면에 능력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나누어서 가르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입시제도도 수능 전 과목을 합산하여 선발하기도 하고, 이와 나란히 한두 과목만 잘해도 뽑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인내력을 가진다면 이를 해결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설령 학생의 학업능력과 관심에 따라 여러 반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모티브와 근거만 마련해 준다면 학생들의 사기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이와 함께 고교등급화 문제를 잡음 없이 해결하려면 지금 일년에 한 번 치르는 수학능력시험을 일년에 서너 차례 치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수학능력시험의 수준을 대입 자격고사 정도로 낮추어 잡지 말고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검사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수학능력평가를 가볍게 한다고 해서 과외가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학생들의 생각의 폭을 넓고 깊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는 것과 수학능력시험을 경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또 과외문제만 하더라도 과외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발상보다는 어떤 식의 과외를 막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생들의 사유능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많은 경험을 갖게 하며, 이를 토론하고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펼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토론문화를 유도하는 과외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생각이 깊고 창의적인 학생들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다. 논술이나 면접을 강화하여 사고를 깊이하고 표현력을 기르는 훈련을 갖도록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감수성, 사고의 유연성 등을 올바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수학능력시험을 1년에 몇 차례씩 실시하고, 인성 테스트도 아주 정교하고 타당하게 개발해 낸다면 고교평준화에서 생기는 입시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 고교평준화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생긴 소위 명문고들은 나름의 훌륭한 교육방법들을 발견해 낸 학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명문고들이 객관식·주입식·암기식만을 강요해 왔다면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것이지만 말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올바른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이 평가방법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학생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각 고등학교의 몫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교육현장을 19세기식 사고를 하는 부모들과 교육관료들이 20세기식 사고를 갖고 있는 교사들과 함께 21세기식 감각과 사고를 지닌 학생들을 망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행정 당국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교육개혁을 시도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체질개선이 학부모 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19세기식 내지는 20세기식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사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학급 규모를 줄인다든가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나 학부모 연대 등의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학부모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학부모들은 사회 전체 분위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거꾸로 학부모들의 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 분위기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만큼 절실한 문제도 없으므로 학부모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도 불가능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디 교육개혁의 방향이 올바로 되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몇 가지 제도개선만으로 모든 문제를 단시일에 해결하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육부, 대학, 고등학교, 학부모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개혁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한다면 고교평준화의 기틀을 유지하면서 대학입시개혁 및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경숙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기독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독일 퀘팅겐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로서 입학처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 『구약성서의 여성들』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